

수출규제 관련 중국동향(11.26~28)

1. 지소미아 관련

□ [언론 동향]

- 환구망(环球网)은 22일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발표 이후, 한·일 양국이 발표 내용 관련 사실 논쟁을 벌이고 있어 향후 전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도¹⁾
- o 2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에 대한 일본 매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향후 양국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
-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이후 한일 관계에 대한 전망을 보도²⁾
- o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싸고 의견 대립이 계속되던 한·일 양국은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협상 재개를 조건으로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와 WTO 제소 잠정 중단에 합의하였다고 인용 보도
- o 25일 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일은 무역과 외교 분야의 협상 일자와 의제 등을 조율하고 있으며 빠르면 금주부터 협상이 시작될 것
- o 그러나 아베 총리가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에 있어 일본은 양보한 것이 없다고 발언하고 있어 양국의 협상이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
- 려지망(荔枝网)은 중국 군사전문가 成汉平 교수의 의견을 인용하여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이 미국의 압박 때문이라고 보도³⁾

1) 「韩日再打“口水仗”，韩高官警告日本：试试看……看看我们会采取什么行动」, 『环球网』(2019. 11. 26)

2) 「韩日博弈：军情协定妥协点模棱两可 磋商能否顺利?」, 『中国新闻网』(2019. 11. 26)

3) 「变卦了!《日韩军事情报交换协定》顺延, 韩国打的什么主意? |军情观察」, 『荔枝网』(2019. 11.26)

○ 成汉平 교수는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의견을 바꾼 이유가 미국의 압박 때문이며, 한국의 군 관계자도 한국 정부가 미국의 계속되는 압박을 견디지 못해 최후의 순간에 어쩔 수 없이 양보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언급

- 중국청년보(中国青年报)는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장을 결정하며 무역 분쟁과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을 벌었으나 아직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보도⁴⁾

○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장은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키고 싶지 않은 미국의 압박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이며, 갈등의 근원인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는 아직도 좁혀지지 않았음을 지적

○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와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철회하지 않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간 협력 관계는 정상화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보도

- 중국청년보(中国青年报)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안보 파트너인 일본에 대한 강등 조치이며 미국을 주도로 하는 군사 동맹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⁵⁾

○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주장한 것은 일본을 자극하면서 미국이 개입하도록 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후 미국에 계속해서 조정을 요청했으나, 일본의 반대로 미국은 개입하지 않았음.

○ 지소미아 종료는 군사 안보 교류 파트너인 일본에 대한 강등 조치이며, 한·일 관계 악화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적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직접 국방부 장관을 파견하여 한국을 압박한 것이라고 분석

4) 「日韩关系虽有转机但仍难弥合诸多分歧」, 『中国青年报』(2019. 11. 27)

5) 「美日韩纷争表象下的隐秘秩序」, 『中国青年报』(2019. 11. 28)

- 한국은 기술 부문에 있어 일본의 제재를, 군사 안보 협력에 있어 미국의 압력을 막아내기 어려운 처지이므로,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
- 중국망(中国网)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이어지는 압박과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따른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소미아에 종료 조건부 연기를 결정한 것이라는 중국 전문가의 분석을 보도⁶⁾
- 중국 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 글로벌전략연구소 李成日 연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
- 한국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종료를 선포할 수 있다’ 는 전제로 종료 연기를 선포했고, 이로 인해 일본 정부는 강경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분석
- *결국 한국 정부는 한걸음 양보 한 것이므로, 한·일 관계 악화의 모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일본 정부는 한국과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분석
- 지소미아 종료 유보로 한·일 갈등이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한·일 안보 협력에 있어서의 수요 변화, 양국 간 과거사 문제 해결 등이 남아있으며, 향후 갈등이 지속될 것이며 더욱 격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

6) 「韩日矛盾, 能否得到真正的缓解?」, 『中国网』(2019. 11. 28)